

韓國 建塔因緣의 變遷 ①

—願塔을 中心으로—

金 禧 庚

序 言

伽藍配置上 建塔함은 印度에서는 佛敎敎祖에 對한 信仰으로 身骨奉安에서 비롯한 것이니 當然한 일이나, 韓國에서는 이같은 舍利信仰에 따르는 建塔 以外에 그곳에 이르기까지 發願이 따르게 되었다. 이러한 願塔의 性格을 지니는 塔婆가 많은 곳은 東洋 流轉 諸國에서도 두드러져 보이는 事實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因緣에 依한 塔을 속에는 銘文이 있는 것이 있어서 塔婆編年에 基準이 될 뿐 아니라, 時代에 따르는 建塔 因緣의 性格을 究明함에 있어서 重要함으로 이들을 明確한 것만들어 時代別 內容別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一、新 羅

(一) 國家鎮護를 爲한 塔
皇龍寺 九層塔(慶州 仁旺里) : 國王의 發願으로 善德王 十四年(A. D.

595)에 建立된 이 塔은 總高 二百二十五尺②의 前無後無한 巨塔으로 新羅人의 氣象을 잘 나타내고 있거니와 三韓爲一 隣國之災可鎮을 爲한 實로 民族的 國家의 念願을 祈願한 塔이다. 卽 第一層 日本, 第二層 中華, 第三層 吳越, 第四層 托羅, 第五層 鷹遊, 第六層 靺鞨, 第七層 丹國, 第八層 女狄, 第九層 濊貊이라 明示하였으니, 當時 周圍에 여러 強大國으로 둘러 싸였던 新羅로서는 首肯되는 일이다. 以後 이 塔은 歷朝 建國者의 崇仰을 받고 模範이 된 것은 매우 重要한 事實이다. 其間 六

차례의 重成과 屢次의 兵火끝에 高宗 二十五年(A. D. 1238) 蒙古③의 兵火에 燒失되었으니 所任을 다하고 國難에 殉하였다고 할 것이다.

(二) 國防上의 建塔

A、敵兵을 怯敗시키기 위한 塔

四天王寺木塔兩基(慶州 仁旺里) : 唐高宗의 新羅 討伐計劃을 明朗法師의 文豆婁秘法으로 唐兵을 怯敗시켰다 함은 널리 알려진 일이며, 塔은 文武王 十年—十九年(A. D. 670~679)의 建立으로 推定된다.

B、國防上 要地에 建塔

感恩寺東西三層石塔 : 文武王의 聖慮에 依하여 「欲鎮倭兵」코자 神文王 二年(A. D. 682) 建立으로 推定되는 塔이라 하겠으니, 東쪽으로부터의 侵入에 恒時 對備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新羅의 防備를 文武王海中陵寢(大王右), 利見臺, 感恩寺, 大鐘川, 石密庵 등으로 連結하여 볼 때, 그 遠大하고 壯嚴함에 머리가 수그러지며 西塔은 一九五九年④의 國立博物館의 解體作業으로 羅代의 優秀한 舍利藏置가 發見되었거니와 寺址의 發掘作業에서도 特異性이 밝혀졌다. 또 塔自體의 樣式을 보더라도 羅濟兩系의 樣式이 하나로 綜合되어 韓國石塔으로서의 典型樣式의 定立을 보였으니 三國統一의 威勢를 誇示한다고 하겠다.

(三) 國王·王族·貴族·豪族의 祈福塔

A、國王願塔

皇福寺三層石塔(慶州市 九黃里) : 學術적으로는 最初인 一九四二年の 開塔時, 塔內에 發見된 金銅舍利函蓋裏面⑤에 記刻된 銘文에 依하여 三十一代 神文王이 天授三年(A. D. 692)에 崩御함에 冥福을 받기 爲하여 神陸王后와 孝昭王이 建立한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年代의 確實함과 純金如來立像과 坐像, 金製, 銀製의 舍利盒, 金銅函四面에 鏤刻된 九十九塔等은 羅塔研究上 하나의 標準이 되는 貴重한 塔으로 建立은 A、D、六九二年 以後로 推定된다.

昌林寺址三層石塔(月城郡 內南面 塔里) : 塔에서 發見된 銅塔誌初行⑥의 記刻으로 大中九年 文聖王 十七年(A. D. 855)에 建立된 國王慶膺造之塔임을 알게 되었다. 寫經인 無垢淨光陀羅尼經 末尾餘白左端 金

正喜의 「甲申春 石工破慶州昌林寺塔……」의 記錄으로 朝鮮純祖二十四年 (A. D. 1824)에 無心한 石工에 依하여 塔이 破壞된과 國王願塔다운 貫錄을 보인 塔內遺物의 內容을 알게 되었다.

寶林寺三層石塔兩基(全南 長興郡有治面 鳳德里)·寶林寺는 新羅四七代 憲安王之 願利로서 南北塔에서 各各 蠟石製塔誌가 發見되었는데 塔誌(北)에는 憲王敬造之塔임을 비롯하여 造塔時는 咸通十一年 庚寅(A. D. 870) 景文王 十一年이고, 其後 成化十四年(A. D. 1478)에 重修한事 實까지 陰刻하고 있다.

敏哀大王石塔(桐華寺毗盧庵三層石塔)으로 推定, 大邱市 道鶴洞)·一九六八年 東國大博物館에 奇贈된 破壺⑧에 楷書體로 鮮明하게 陰刻된 「國王奉爲 敏哀大王追崇 福業造石塔」과 咸通四年(A. D. 863) 景文王 三年에 國王이 敏哀(閔哀)大王을 爲하여 建立함이 判明되었는데, 王位爭奪을 벌였던 羅末王室의 一面을 알 수 있겠다. 또 統初에는 金屬製舍利容器가 使用되었던 것이 石盒으로 된은 時代下降에 따르는 舍利藏置方式의 變遷을 보여주며, 石盒表面에 黑漆한 것 또한 稀少한 例라 하겠다.

B. 王族·中央貴族·地方豪族의 祈願塔

葛項寺址東西三層石塔(原, 慶北 金陵郡 南面 梧風洞)·東塔 上層基壇에 五行 五四字로 記刻된 銘文은 吏讀文이 混用된 羅塔唯一, 그리고 塔面石表面에 銘文⑨이 새겨진 最初의 例로써 零妙寺言寂法師, 照文皇太后(元聖王生母朴氏), 姨母의 三人의 福業으로 天寶十七年(A. D. 763)에 建立되었는데 塔에의 記銘은 元聖王代의 後刻인 것이다.

法光寺址三層石塔(慶北 迎日郡 上邑洞)·近年에 發見된 二個의 塔誌 石中⑩ 第一石인 台座와 頂上에 蓋部가 있는 石碑形 黑色 塔誌石 前面에 代代檀越生淨土 今上(文聖王) 福命長遠을 爲하여 大和二年(A. D. 828) 興德王三年에 建立됨을 알았는데 記銘은 移建時인 會昌六年(A. D. 846)인 듯하다. 그리고 屋蓋가 없는 第二石으로 康熙三十七年 戊寅(朝鮮肅宗 一十四年 A. D. 1698)과 乾隆十二年 丁卯(英祖 三十二年 A. D. 1747) 두 차례의 石塔重修事實도 傳하고 있다.

鐵原到彼岸寺三層石塔(鐵原郡 東松面 觀雨里)·咸通六年(A. D. 865)

景文王五年 地方豪族의 建立으로 보여지는데 그 獨特한 塔樣式으로 傳리 알려지고 있다.

奉化 鷲棲寺三層石塔(羅北 奉化郡 物野面 皆丹里)·舍利盒胴體⑪에 伊浪 金宗亮의 季女의 親自發弘誓 專起佛塔已 云云의 記刻으로 咸通八年(A. D. 867) 景文王七年 中央貴族에 依하여 建立된 願塔임을 알겠다. (國立博物館 所藏)

二、高麗

(一) 國家鎮護를 위한 塔

無血로 新羅千年社稷을 물려받은 高麗太祖王建은 新羅의 皇龍寺木造 九層塔建立의 古智를 模倣하여 開京에 七層塔, 西京에 九層塔을 建立하였으니, 即 「昔新羅造九層塔 皇龍寺塔 遂成一統之業 今欲開京建七層塔 西京建九層塔 冀借玄功除暴醜 合三韓爲一家(高麗史列傳)」라 있는데 木塔으로 推定된다.

(二) 重臣의 國家定泰祈願塔

姜邯贊將軍興國寺石塔(原, 開城市 滿月洞)·契丹大軍을 물리쳐 危難의 國家와 民族을 救한 姜將軍이 興國寺에 邦家永泰를 祈願하여 天禧五年(A. D. 1021) 顯宗十二年에 建立하고, 6行 二十八字의 銘文을 上層基壇面石에 記刻하였는데 贊말하나 憂國의 忠誠心을 알 수 있겠으며 現在 二、三層屋身石이 缺하고 있다.⑫

淨兜寺五層石塔(原, 慶北 漆谷郡 若木面 福星里)·上層基壇에 記刻된 銘文

⑬으로 太平十一年 顯宗二十二年(A. D. 1031) 建立인만큼 알 수 있는데 姜將軍塔보다 一〇年後이며 銘文의 內容이나 字數도 비슷한데 다만 發願者名이 없으며, 紙本墨書造形止記가 塔內에서 發見되었다. 當時 開京에서 떨어진 地方에서까지 此種의 願塔이 流行되었음을 보겠다.

(三) 豪族의 王室壽祥祝願塔

敬天寺塔(原, 京畿道 開豐郡 光德面 中蓮里)·第一層屋身石이 丈들의 施納 記銘에 「祝皇帝陛下萬萬歲皇后⑭와 至正八年戊子三月, 高麗 忠穆王四

年(A. D. 1348)에 建立으로 되어 있는데 發願者에 對하여는 兩說이 있다. ① 晉寧府院君 姜融 大施主院使 高龍鳳, 大化主 省空, 施主 法山人 六怡 等이 元·麗王 室의 壽祥을 祝願하기 위하여 ② 東國輿地勝覽에는 元丞相 脫脫이 願利를 세우고 姜融이 元工匠으로 하여금 建設케 하였다는 記錄이 있었는데 恃勢逆臣의 손으로 建立된 것만은 確實하다. 그런데 이 塔은 舊韓末 田中光顯이 不法으로 日本에 搬入하였다가 輿論에 못이겨 여러 조각이 된 것을 返還하게 된 것도 야릇한 運命이라고 하겠다. (一九六〇年 再建된)

李成柱發願銀鍍金舍利塔(原、金剛山月出峰發見) ··· 一九三二年 一〇月 金剛山月出峰石函內에서 發見되었으며, 舍利塔內 圓筒周圍에 「門下侍 中李成柱……」의 刻銘이 있으며 作出的 靑銅碗白磁碗에 「洪武二十四年 辛未二月」 등의 刻記가 있음으로 그의 即位 一年前인 恭讓王三年(A. D. 1331) 康氏夫人과의 發願임을 보겠다. 一般塔이 아닌 工藝塔이긴 하지만 發願의 趣旨는 같다고 하겠다. 塔高 一五·七cm 圓筒高 三·七cm.

三 李朝時代

(一) 國家鎮護의 塔

開城演福寺木造五層塔 ··· 麗末에 聖君萬年奉宗祐 景祚綿延千世億을 爲하여 發願하였으나, 完成 못하고 易世 李太祖로 하여금 亦資佛敎利邦國 五層復建畢功役케 하였는데 新羅의 皇龍寺塔이나 高麗의 開京七層塔에 비할 塔이라 하겠다.

(二) 國王願塔

興天寺木造五層塔 ··· 李太祖는 顯妃康氏의 冥福을 받기 위하여 興天寺를 創建하고 同七年에 木造五層塔을 建立(A. D. 1396)하고 舍利閣이라 불렀다. ⑩

圓覺寺址十層石塔(塔洞公園) ··· 圓覺寺의 前身인 興福寺는 祈雨、醫療等을 이 寺利에서 行하는 등 王室과 깊은 因緣을 맺고 있었는데, 世祖가 敎團을 統合하고, 國民思想의 統一을 爲하여 世祖十三年四月(A. D. 1406) 建立하였다고 記錄되었는데 世祖의 發願動機로 보아 李朝塔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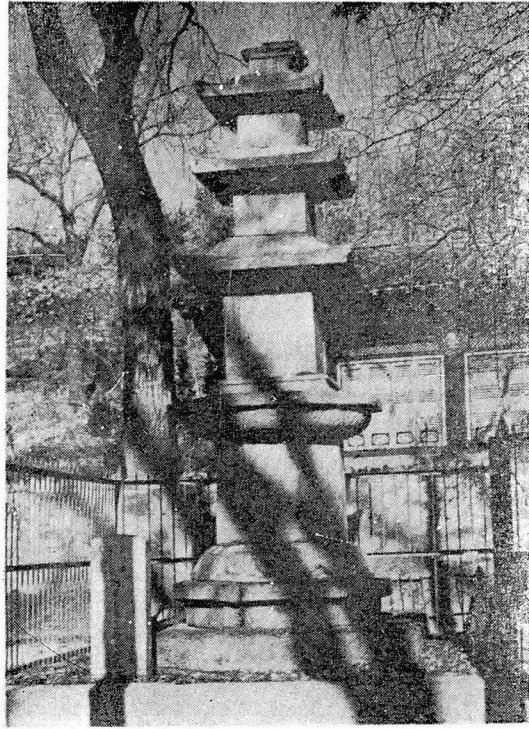
서도 注目해야 할 比重이 큰 塔이라고 하겠다. 解放後 美軍工兵隊의 後援으로 一九四六年 가을 上部三箇層을 引揚作業時 제 一層屋蓋石上面과 제 二層基臺上面에서 記銘이 發見되었다. ⑪

結 言

願塔의 建立이 高句麗에서는 塔이라고곤 三靑岩里八角木塔址가 推定된 程度고 그 以外는 알 수 없으며, 百濟는 新羅가 皇龍寺를 建立하기 爲하여 請工於百濟하여 阿非知가 木石을 經營하였다 ⑫고 하니 精神的인 面도 傳했으리라고 믿어지며, 또 砂宅智積碑에서 穿金以建堂 ⑬ 鑿玉以寶塔 等으로 이루어 願塔의 建立이 있었으리라고 믿어진다. 古新羅에서 願塔은 國家鎮護를 爲한 것이었고, 統一新羅에서는 가장多數의 願塔이 造營되었으니 國防上, 國王, 貴族, 豪族等의 祈福塔이었고, 九世紀에는 對立된 王族各派間의 願堂에 願塔이 建立되었고, 特別 景文王代를 中心으로多數建立되어 貴重한 學術資料를 提供하여 一時期를 誇하였다 고 하겠다. 高麗에 들어서서는 祈禱佛敎와 風水說이 합쳐지며 國王願塔外에 重臣들의 邦家永泰祈願塔, 外勢에 힘입는 豪族들의 高麗와 外國王室의 壽祥祝願까지 祈願하는 塔이 나타나 特色이다. 李朝에 들어서서는 排佛政策을 取하였으나, 王室을 中心으로 初期까지는 建塔事業이 繼續되었으니 즉 李太祖의 造塔, 世祖의 建塔과 修塔事業等이 括日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토록 國家鎮護를 爲하여 建立되었던 新羅의 皇龍寺塔이 以後 王朝의 交替가 있을 때마다 高麗 開京의 七層塔, 李朝의 演福寺塔으로 줄기차게 傳統이 繼承된 事實은 此種의 塔이 木塔이라는 點과 아울러 驚歎할만한 일이라고 하겠다. 近世에 이르러 水鍾寺八角五層塔內發見의 碑文에 朱書한 成宗二十四年(A. D. 1492)의 發願文, 法住寺木造五層塔(捌相殿)內의 宣祖三十年(A. D. 1596)의 舍利보자기에 墨書한 發願文等은 宮女들이 自己所生인 王孫들의 壽福을 祈願한 것이며, 또는 民間에서 塔契를 組織하여 塔을 保護하는 同時에 生男을 爲하여 祈禱하는 塔信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以上에서 더듬어 본 것과 같이 韓國의 塔契는 單純한 石塊를 重疊한

築造物이 아니라, 깊은 信仰心과 崇高한 藝術性이 長久한 傳統위에서 이룩된 結晶體라 하겠다. 그러기에 「功은 塔이 무너지라」란 말이 나오다 시피 千餘年이 지나도록 인적이 드문 山寺에 或은 木鐸소리 끊어진지 이미 오래된 廢寺址에서 默默히 서 있지 않은가. 塔姿의 外形樣式만을 論하는 나머지 이러한 精神的 背景을 疏忽히 하는 일이 있다면, 結局 一面만을 觀察한 所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倒彼岸寺 三層石塔

① 이 論文은 一九七二年 五月二十六日 淑明女子大學校에서 열린 第一五回 全國史學大會 考古美術部에서 發表한 것을 補充한 것이다.

② 藤島亥治郎의 「朝鮮建築史論」第一 및 朝鮮塔婆의 樣式變遷에는 이곳의 二・三 五尺이란 尺度는 現今使用되는 曲尺이 아니고 東魏尺이였을 것이니, 그 數에 若干다해서 現尺으로 近二六〇尺이 된다. (韓國塔婆의 研究 註二二) 中樂勳·「皇龍寺 九層塔과 周尺」(考古美術九一一號)에서 本塔의 尺度를 東魏尺으로 보는 藤島說과 周尺으로 보는 金元龍氏說이 있음을 指摘하고 「皇龍寺木造塔의 營造用尺은 아직 遺址에 근거한 東魏說에 머물어 있게 된다」고함.

- ③ 三國遺事卷三 皇龍寺九層塔條
- ④ 金載元·尹武炳·感恩寺 一九六一年刊
- ⑤ 李弘植·「慶州狼山東麓三層石塔內發見品」(韓國 古文化論叢所收)
- ⑥ 收黃壽永·永續金石遺文、慶州南山의 佛蹟、未攷保和：新羅史의 諸問題
- ⑦ 黃壽永·金石遺文(以下遺文)、未松保和：新羅史의 諸問題
- ⑧ 黃壽永·「敏哀大王石塔記」(史學志 第三輯 一九六九、七) 一九六六年刊 盜掘 犯의 被害를 論함.
- ⑨ 拙篇·韓國塔婆研究資料(考古美術資料 第二〇輯) 以下 塔資料 葛城·朝鮮金石攷 ※이에 앞서는 扶餘定林寺石塔에도 銘文이 있으나 여기 서는 除外되야 할 것이다.
- ⑩ 黃壽永·「新羅法光寺石塔記」(山學報 第八號 一九七〇、六刊)
- ⑪ 舊朝鮮總督部·博物館陳列品圖鑿第八 以下 圖鑿、今西龍：新羅史研究
- ⑫ 拙篇·塔資料、博物館陳列品圖鑿 第十六
- ⑬ 黃壽永·遺文、圖鑿 十三
- ⑭ 高僧變·松都古蹟、黃壽永·遺文、塔資料、東國輿地勝覽
- ⑮ 黃壽永·遺文、圖鑿 六
- ⑯ 中宗朝實錄等 李太祖는 少年時節에 無學大師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와 關係되는 塔婆차도 演福寺塔、與天寺塔、月出峰發見의 銀製金鍍舍利塔의 三一 이 있고, 咸南安邊의 釋王寺도 東國輿地勝覽 卷四十九 安邊條에는 太祖潛 邸時建이라고 있다.
- ⑰ 黃壽永·遺文、郷土 第二號(一九五八年 六月刊)
- ⑱ 三國遺事 卷三 皇龍寺九層塔條
- ⑲ 洪思俊·「百濟佛宅智積碑에 對하여」(歷史學報 第六輯 一九五四年 三月刊)